

하나님의 새 가족 안에서의 삶

Clément Tendo, 목회 인턴

에베소서 2:11-22

2023년 6월 11일 설교

좋은 저녁입니다.

돌아온 것은 축복입니다.

원보이스 가족 여러분, 세미나리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졸업했으며 주님께서 여기 One Voice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서로 다른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온 구속받은 백성으로 함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과 서로 화해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갈등의 고통을 겪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에베소서 2:11-22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1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가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으나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나라 외인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라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사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화평을,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느니라

18 그를 통해 우리 둘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 영국 목사인 John Stott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독자들의 영적 전기를 세 단계로 추적합니다...

세 단계는 ‘한 때’(11절), ‘이제’(13절), ‘그때’(19절)라는 표현으로 표시됩니다.

동일한 요점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1) 우리의 한때는 어떠했는가(11-12절).

(2)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13-18절);

(3) 우리가 된 것(19-22절).

첫 번째 요점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삶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말씀과 그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틀을 잡고, 본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들을 때 그들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함께 교화되고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점 1: 우리의 한때는 어떠했는가(11-12절).

”한 번에”라는 문구는 우리에게 과거를 가리킵니다.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에베소의 믿는 이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무할례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비유대인은 누구든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12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에베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묘사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8:22은 이렇게 말합니다.

22 그들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짙은 어둠 속으로 밀려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짙은 흑암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평강의 왕은 흑암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1a, 2절에서 이사야가 다음으로 기록한 내용을 들어 보십시오.

1a “고통하던 그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다...”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깜깜한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이 어둠은 죽은 전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관계적 어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둠을 십자가에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45-46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육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은 흑암에 빠지셨습니다.

그는 소외된 인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죄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요점으로 인도합니다.

요점 2: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13-18절).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그러나 지금은”이라는 문구는 우리가 한때 있었던 것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주제가 이동함을 가리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 피가 필요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22b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입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이 온전한 사람의 피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21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죽으셨습니다.

성경적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과 관련된 완전한 복지, 번영, 안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절의 “적의의 벽”은 영적 분리와 성전의 물리적 벽을 의미합니다.

그 벽에 대한 한 역사가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적대감의 벽\은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지은 웅장한 성전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사원 건물 자체는 높은 플랫폼에 지어졌습니다.

그 주변에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것의 동쪽은 이스라엘의 뜰이었고 더 동쪽은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남자와 여자들을 위한 이 세 뜰은 성전과 같은 높이에 있었다.

이 수준에서 하나는 벽으로 둘러싸인 플랫폼까지 다섯 단계를 내려왔습니다.

또 성벽 저편으로 또 열네 계단을 올라가면 또 다른 성벽에 이르니 그 너머에 이방인의 바깥뜰이 있더라...

이방인들은 성전을 올려다 볼 수는 있었지만 가까이 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경고문과 함께 주변의 돌 바리케이드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무단 침입자는 처형될 것’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분리시키는 이 적대감의 벽을 죽였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썼을 때 성전의 돌담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적대감의 벽을 제거하셨는지 보여줍니다.

15 ”범령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여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께서 하느님의 법을 없애셨다는 의미입니까?

결코 아니다.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명의 법”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의식법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황소의 피를 사함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그것들을 완성함으로써 그것들을 폐하셨습니다.

2. 또는 바울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구원의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요점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백성, 그리스도의 한 몸,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해설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살해당한 사람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분리시키는 원수를 죽였습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공통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18절에서 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평화는 활동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평화는 설교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평화의 화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적대감의 벽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이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셋째, 삼위일체의 사역입니다.

1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공동체를 화해시키려면 삼위일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점입니다.

요점 3: 지금 우리가 된 것(19-22절).

아마도 일화가 이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4년 동안 학생으로서 제 비자는 “비이민 외국인”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이 나라에 영주권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미국 정부가 귀하의 신분 처리를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미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거의 1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많은 곳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이방인처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시민권인 하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중 일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모든 지위는 국경에 국한되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하늘 시민권은 “비이민 외국인”을 시민으로 변화시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로 인해 당신이 어떤 민족 출신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없고, 무국적이며, 친구도 없고, 희망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당신의 고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전 세계에서 온 영적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모두 다음과 같은 하늘 도성의 “동료 시민”입니다.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자체로 교회의 기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고백하고 고백한 것을 가리킨다.

교회는 성경의 교리,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사도는 신약 시대를 대표합니다.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했고 사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관한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모퉁잇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를 이룬 후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원을 걸 수 있는 우리의 닻이 되셨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1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해 인체의 뼈를 연결하는 인대와 같습니다.

그는 우리를 연결하고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One Voice가 하나됨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화해와 연합과 조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의견, 문화 및 배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연합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문화, 시간을 초월한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우리는 현재와 내세에서 항상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21절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바울이 에베소서 2:22에서 묘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니다.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스스로 연합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분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화해와 연합에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One Voice의 우리 중 일부는 비서구 국가 출신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관계의 보존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평화를 만드는 것과 "평화를 위조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반면에 일부 미국인 형제 자매들은 진리에 대해 매우 직설적입니다.

그들의 솔직함은 무뚝뚝함으로 인해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 중 어느 것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위조하는 사람이나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사랑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실 없는 사랑은 위선이고, 사랑 없는 진실은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9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받기를 원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사람들은 이해를 받든 못 받든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자세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화목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속된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려운 때에도 서로 화평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평화를 선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우리를 같은 시민으로 연합시켜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을 의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